가정방문 고지하니 외려 협박교육감, 교육활동 침해 이유로 학부모 형사고발 한 것은 처음  
  
  
  
  
  
  
  
학교 수업. 게티이미지.스승의 날을 앞두고 강원교육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해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했다. 강원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것은 처음이다.신경호 강원교육감은 13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ㄱ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.강원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, ㄱ씨는 자녀(학생)가 미인정 결석하자 교사 ㄴ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는데도 “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”고 협박했다. 이어 ㄱ씨는 실제 가정방문을 한 ㄴ교사를 스토커로 112에 신고하고,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한다.이로 인해 ㄴ교사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,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. 강원교육청은 ㄴ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.또 강원교육청은 ㄴ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지난 1월 ㄱ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하자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.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한편 강원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통계를 보면, 최근 5년간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, 356건은 학생에 의한 침해(모욕과 명예훼손)였다. 강원교육청은 지난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강화했다.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“이번 고발 사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,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